

“직속기관 명칭변경 조례 반대”

전북교육청, 재의요구서 도의회 송부... 본회의 상정여부 관심축가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1일 도의회에서 의결통보한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29일 도의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 6개 직속기관(전라북도교육연구원, 전라북도과학교육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학생수련원, 전라북도학생해양수련원, 전라북도유아교육진흥원) 명칭에 담긴 '전라북도'를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세 글자를 삽입하고,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과 마한교육문화회관은 소재하고 있는 시(市)의 이름을 넣어 각각 전주교육문화회관, 익산교육문화회관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이유를 ▲교육감에게 부여된 기관설치·운영 및 명

칭제정권을 침해한 점 ▲집행기관이 수차례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 발의한 것은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 사전적·적극적 개입인 점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불명확한 반면 8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명확한 점 ▲도내 많은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 등을 통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최근 전북교총, 전북교사노조, 공무원노조 등의 성명서에 이어,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 등 12개 산하단체로 구성된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의 성명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경주시와의 자매결연과 익산 고도지정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등 익산고도의 역사·문화발전에도 초석을 다져오는데 일익을 담당한 (사)마한백제민속예술제전위원회까지도 역사성 무시 행위를 지적하며 마한교육문화회관의 명칭변경 조례 의결에 강력반발하고 나서는 분위기다(관련기사: △익산신문(2020년 5월27일) 마한교육회관 명칭변경, 역사성 무시행위, △익산투데이(2020년 5월22일) 마한교육문화회관이 어때서? 명칭변경 논란).

이 같은 여론은 이번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진형석 도의원이 명칭 변경의 근거로 제시한 일반도민 여론조사에서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 교육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대상 직속기관들 중 6곳의 이용자는 일반도민이 아닌 교직원, 학생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인데도

불구하고 주 이용자 대상이 아닌 일반도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차용해 교육 직속기관 명칭을 바꾸는 것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직속기관별 2019년 주요사업 및 시설이용자 중 학생과 교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교육연구원 100%, 유아교육진흥원 99.5%, 연구정보원 98.6%, 학생수련원 93.6%, 해양수련원 93.4%, 과학교육원 76.4%, 마한교육문화회관 54.8%, 전북교육문화회관 54.4%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직속기관은 물론 도내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도 성명서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고, 또 명칭 변경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업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의 회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극복 '심리치유' 공모전

전주교육지원청 Wee센터, 시 등 형식 다양 ... 8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치유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9일 전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들과 자녀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겪은 다양한 사건이나 이야기들을 발현시키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형식은 그림(8절지)·시·수필·만화(4컷·8컷)·사진·UCC 등 다양하며, 공모주제는 코로나19로 인해 겪었던 긍정 또는 부정적 경험을 소재로 하면 된다.

응모기간은 오는 8일까지다. 전주교육지원청 누리집→위센터→공지사항 순으로 접속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우편·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형식에 구분 없이 총 23명을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

“꿈과 끼를 찾아라”

만경여고, 6~10월 4개월간 자신감 향상 프로그램 진행

만경여자고등학교(교장 이상수)는 자신만의 색깔있는 진로선택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균형성장 발달 기회를 제공하고자 ‘꿈과 끼를 찾아서 행동하는 신나는 체험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6월~10월까지 4개월 간 테마별 캠프와 자연친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농어촌 학생들의 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학생 수요자의 진로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 선진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다.

정태환 교무부장(교감 직무대리)은 “만경여고는 다양한 목적사업과 작은 학교에 특화된 교육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진로희망·교육과정(자율활동)-학교생활기록부 기록에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어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진로와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2020 농어촌청소년 소원성취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됐으며,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실시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사업’ 선정

중소기업 대학 내 상주...인력, 장비, 기술, 교육 지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거점사업단(단장 송재호 교수)은 2020년도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사업 ‘호남·제주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사업은 중소기업의 후속으로, 거점대학의 모든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사업기간 중 대학 내에 상주하면서 대학과

공동으로 R&D기술개발을 수행하고, 대학은 실험실과 연구인력, 장비, 기술 지원,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전북대는 2014년과 2017년 수행한 연구마를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유기적인 권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통한 R&D 수행 능력 등을 인정받아 호남·제주권역(전북, 전남, 광주, 제주)을 아우르는 운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을 통해 사업단은 권역별로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없는 기

업을 대상으로 6월 중 1단계(1개월/과제당 200만원) 지원으로 40여개 내외의 기술역량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대 이공계 교수진 등 전문가 매칭을 통해 2단계(2년/과제당 국비 3억원) R&D과제로 15여개 내외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송재호 산학협력거점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연구소가 없는 권역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의 우수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R&D 기술개발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메뉴얼을 작성하고, 필요물품을 지원했다. 왼쪽부터 노경일 사무처장, 김성호 전문체육과장, 염동석 도장애인복지협회 사무국장.

호원대 학생상담센터 한달간 ‘찾아가는 전화상담’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6월 30일까지 재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화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입생을 대상으로 ‘마음알기’ 심리검사를 통해 우울과 불안 등 스트레스에 노출된 학생들을 선별해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교직원들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상담사가 비대면 접촉 방법으로

로 먼저 다가가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영 학생상담센터장(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 오히려 문턱을 낮춘 접근 방법으로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에게 이르기까지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쉬운 접근성과 폭넓은 상담지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호원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앞으로도 재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비대면 접근 방법으로 온라인 상담 및 전



화 상담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비대면 수업 전환 등으로 인한 재학생들의 혼란한 마음을 토닥여 주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장애인체육회 “코로나 철저한 생활방역 실시”

예방수칙 교육·예방물품 지원

전북장애인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코로나19 감염증에 취약한 장애인 선수들을 위한 메뉴얼을 작성하고, 필요물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까지 총 28개 종목, 49개 소의 훈련장을 사전 조사해 출입자 관리, 의심증상 발생시 대처요령 및 예방수칙 교육을 종목 담당자와 일대일 대면 혹은 유선으로 실시했다.

이에 훈련장에 비접촉 체온측정기, 손소독제, 안내현수막, 예방수칙 포스터 등을 지원했다.

노경일 사무처장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움추렸던 체육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아가면서 장애인체육 현장이 감염의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시해 안전하고 건강한 훈련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